

포천시 道체육대회 7연패 쾌거

축구 역도 배드민턴 태권도 등 6개 종목 우승차지 2부리그 절대 강자 엘리트체육이 일궈낸 성과

포천시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수원시에서 열린 제53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승, 2001년 이후 7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포천시는 이번 대회에서 19개 전정식종목에 383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해 16개 시군이 겨룬 2부 대항에서 고장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한 결과, 종합점수 20,930점을 획득, 2위 오산시(19,705점)와 3위 김포시(18,960점)를 제치고 종합우승 7연패를 달성했다.

종목별 성적을 살펴보면 축구를 비롯해 역도, 배드민턴, 태권도, 보디빌딩, 유도 등 6개 종목에서 종합득점 1위를 차지했으며, 배구와 복사에서 2위, 육상, 수영에서 3위를 차지해 19개 종목 중 11개 종목에서 상위 입상하는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이번 종합우승은 포천시보다 인구가 많은 광주, 김포, 이천, 구리시 등을 제치고 거둔 성과여서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김포시와 오산시가 전 종목에서 강세를 보여 많은 종목에서 변수가 작용해 포천, 오산, 김포시가 대회 최종일까지 각축전을 벌였다.

박운중 포천시장은 우승 소감을 통해 포천시가 7년 연속 패권을 차지한 것은 선수단과 시민,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돼 만든 결과라고 말하고 앞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



포천시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수원시에서 열린 제53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승, 2001년 이후 7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체육이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가 각 종목별로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육상 종합3위 2,627점 ▶수영 종합3위(금1, 은4, 동3) 1,167점 ▶축구 종합우승(남자 우승, 여자 준우승) 1,790점 ▶테니스 여자3위, 남자 8강탈락 1,222점 ▶정구 여자 3위, 남자 1회전 탈락 600점 ▶배

구 종합1위(남자3위, 여자2위) 928점(오산시와 동일) ▶탁구 남녀 각각 8강 탈락 960점 ▶복싱 종합2위(금2, 은1, 동2) 1,212점 ▶역도 종합1위(금5, 은2, 동1) 1,054점 ▶씨름 8강탈락 350점 ▶유도 금2, 동1 825점 ▶검도 1회전 탈락 400점 ▶공도 8위 280점 ▶배드민턴 종합우승(남녀 각각1위) 1,600점 ▶태권도 종합우승(금3, 은3, 동1) 1,533

점 ▶볼링 남자 16위, 여자12위 300점 ▶골프 5위 1,149점 ▶보디빌딩 종합1위(금1, 은2, 동2) 1,320점 ▶유수 종합1위(금2, 은2) 933점 ▶육성점수 690점 등 총점 20,930점이다.

한편 15개 시군이 겨룬 1부 대항에서는 수원시와 성남, 용인시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이번 종합우승은 포천시보다 인구가 많은 광주, 김포, 이천, 구리시 등을 제치고 거둔 성과여서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는 김포시와 오산시가 전 종목에서 강세를 보여 많은 종목에서 변수가 작용해 포천, 오산, 김포시가 대회 최종일까지 각축전을 벌였다.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⑭ 장다리물떼새 [長-, black-winged stilt]

세계적 희귀새 희소성분류 최상위에 기록

장다리물떼새를 아시나요? 지난 4월말 포천에서 탐조활동을 하던 우리 일행의 눈을 의심케 하는 통다리의 미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에는 미조(迷鳥)로 알려진 세계적 희귀조인 장다리물떼새입니다.

이름 그대로 쪽 뺨은 다리의 각 선미가 일품이며 흑백의 깃털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한 번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새입니다. 발레리나의 우아한 걸음걸이가 연상될 만큼 늘씬한 다리와 세련된 외모를 하고 있는 장다리물떼새의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키는 40cm 정도인데, 쪽뺨은 다리에 핑크색 스타킹을 신은 것 같은 모습이 가냘프게 보이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이름값' 하는 아름다운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다리 덕분에 물에서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물 속의 작은 물고기와 곤충, 애벌레 등을 잡아먹으며, 빨갛고 큰 눈은 시력이 좋아 수풀이 우거지고 깊은 물 속에서도 이리저리 걸여 다니며 먹이 활동하는 모습조차도 아름답기만 한 녀석입니다.

1998년 장다리물떼새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관찰되기까지는 미지의 새였습니다. 그 이후 서산간척지에서 번식중인 모습이 관찰되었고 전남 영암에서도 번식중인 것이 공식 확인된 바 있습니다.

몽골 습지와 동남아 등지를 오가며 한반도를 거쳐가는 나그네새인 장다리물떼새는 조류도감 희소성분류 5등급 중 최상위로 기록되어 있을만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새가 포천천에 나타난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북부 내륙 깊숙한 지역에서 관찰됨으로써, 주로 서해안가를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들의 이동경로에 포천천도 포함되는 순간입니다.

비록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단 한 마리의 방문이지만 포천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컷 1마리만의 외로운 방문이라 다소 아쉽기도 하였고, 또 포천천의 하천폭이 너무 협소하고 수량이 적으며 그나마 수질도 오염되어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지역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여 장



2007. 04. 23 포천천에서 촬영

시간 머물거나 번식을 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장을 찾는 귀한 손님들 지역주민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약 1주일간 머물다 무사히 다른 번식지로 떠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고장을 찾은 장다리물떼새가 포천의 따뜻한 인심을

잊지 않고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 포천천을 방문하여 번식까지 하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아파트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생산 전문

동성이 만드는 제품은 품격이 있습니다.



- 근면
- 성실
- 창조



대표 윤이용



◆생산물품◆ 오디오 장식장 부품, 인테리어 소품, 가구 장식장 부품, 불박이장 부품
 ◆본 사◆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1 ☎031)532-2123, Fax. 031)532-2122